

김주현 “카드사 적정 수익 필요… 차별적 규제 없애야”

(여신금융협회장)

여신금융포럼

정책·감독당국 인식전환 호소
규제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
“금융혁신 논의서도 카드사 제외”

여신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가고 있다”며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혁신 부문에서 여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업계가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얻으므로 금융혁신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 부수업무 관련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유 및 구독경제의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캐피탈사는 새로운 상품 및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캐피탈사가 금융업계의 리베로가 돼 우리나라 금융의 적재적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계좌이체 기반 결제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은 “현재 선불·직불·신용 기반 결제수단 간 균형있는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새로운 결제인프라 확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금융혁신 논의에서 카드사가 제외되고 있다”며 “높은 수익성과 고비용 구조라는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비우호적 규제 환경이 조성돼, 카드사의 수익악화는 물론 핀테크와의 규제차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가 안정적 수익구조 하에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맹점수수료 조정 주기(3년) 준수,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영업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등 카드사의 안정적 수익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일산업-동일규제의 원칙을 통해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 금융권의 경영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캐피탈업권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

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리스·할부·대출은 타 금융권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의 차별성이 낮고, 수신기능 부재와 더불어 비교적 영세한 규모, 고비용의 고객 확보 구조 등의 고질적 문제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캐피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선박·상업용 오피스 등 초고가 물건에 대한 공동리스(신디케이트리스)를 통해 리스크 분산 및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구독경제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도해지 또는 반환되는 리스 물건을 구독경제와 접목해 캐피탈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리스자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완함과 동시에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렌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2019 허브 데이(HUB Day)'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 첫번째)이 이혜민 핀다 대표(두번째) 정부석 EYL 대표(세번째) 등과 미래 유니콘 기업 출성 선언을 하고 있다. /KB금융

“혁신금융 스타트업 유니콘 성장 적극지원”

KB금융 2019 허브데이

협업 공간확대·해외진출 지원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전략적 제휴 파트너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러그앤플레이(PNP)와 공동으로 '2019 허브데이(HUB Day)'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허브데이는 KB금융의 핀테크랩인 KB이노베이션허브와 KB스타터스, HUB파트너스가 함께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KB금융과 PNP가 공동으로 진행할 ‘글로벌 스타트업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니콘기업에 도전하게 될 유니콘 후보 스타트업 소개 및 KB스

타터스 기업PR 등의 세션이 진행됐다.

유니콘 후보 스타트업은 KB이노베이션허브 추천과 PNP 전문 심사역과의 화상 면접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EYL(양자난수 생성기 기반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서비스) ▲핀다(자산관리플랫폼 서비스) ▲메인라인(인공지능 기반의 보험상품 자동화 솔루션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

EYL과 핀다, 메인라인 등은 향후 100명 이상의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참여하는 미국 현지 IR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또 PNP의 우수 스타트업 소개 플랫폼 ‘플레이북(Playbook)’에도 등재돼 앞으로 PNP가 소개하는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제휴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안상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UCC 공모전’ 시상식

우리은행 수상팀 상금·기념품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대학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은 공모전 수상팀을 초청해 UCC 수상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부터 약 한달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UCC공모전’을 실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30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의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겨진 작품이 다수 접수됐다.

/홍민영 기자 hong93@

NH금융, 임추위… 이대훈 행장 연임 주목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농협은행 실적면에서 ‘파란불’
2년 이상 연임한 전례는 없어

NH농협금융지주가 오는 15일 주요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결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시한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CEO는 은행과 생명, 손해보험, 캐피탈 등 모두 4명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대훈 농협은행장의 3연임 여부다.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실적 등 성과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3연임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쓸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오는 15일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자회사 CEO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농협금융 계열사 CEO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보통 ‘1+1’ 임기가 지켜진다는 점에서 올해가 1년차인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와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는 연임 가능성이 높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



홍재은
NH농협생명대표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대표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

반면 이대훈 농협은행장과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는 지난해 한 차례씩 연임에 성공해 2년의 임기를 채웠다.

농협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실적면에서는 파란불이 켜졌다.

농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19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급증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한 것은 물론 총당금비용이 감소하는 등 체질개선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이대훈 행장은 올원뱅크를 비롯해 모바일뱅크도 본 궤도에 올려놓고,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 집무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도 공을 많이 들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지난 2년간 농협금융의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해냈고, 추진 중인 디지털 전략과 해외 진출은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농협은행장이 2년 이상 연임을 한 전례가 없는 데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농협은행장 후보군으로는 최창수 농협금융 경영기획부부장(부사장)과 이창호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꼽힌다.

/안상미 기자 smahn1@

퇴직연금 예금잔액 7318억… 업계 1위

서민금융 기업리포트

페퍼저축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10.82% 기록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 10월 국내에 자리를 잡은 호주계 금융사다. 당시 늘 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올해 상반기 기준 총 자산이 2조7374억원까지 급증, 국내 데뷔 6년만에 업계 4위에 올랐다.

페퍼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총 7개의 영업점(지점 5개·출장소 2개), 2개의 자동화 기기를 갖추고 있다.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0.82%로 전년 동기(10.06%)보다 소폭 올랐다.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다. 법규정상 요구되는 비율은 8% 이상이다.

용도별 대출금을 살펴보면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비율이 대동소이하다. 기업자금대출이 총 1조2039억원으로 전체의 46.15%를, 가계자금대출이 1조3827억원으로 53.0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26.88%(7011억원)을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대출은 1조4299억원으로 54.81%에 달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페퍼저축은행의 총여신은 2조6087억원이며 부실여신은 1292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 총 여신은 1조9687억원, 부실여신이 67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페퍼저축은행은 퇴직연금 부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행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 예금을 퇴직연금 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각 저축은행들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예금잔액은 4조6591억원이다. 이 가운데 페퍼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은 7318억원, OK저축은행이 6093억원, SBI저축은행이 6048억원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